금구법구

은혜를 갚는 것은 그림자 몸 따르듯
이러히 행한다면 인간의 도리이고
원한을 푸는 것은 화로에 눈 녹듯이
이러히 행한다면 그 마음 고요하리.
- 금오집 -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31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사찰재정의 '투명성'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선가귀감)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돈이 생길 경우, 사찰에서 종사하는 재가자인 정인(淨人)에게 맡게 하라고 설하셨다. 돈을 만지는 것은 '위의와 사문의 법과 청정한 행과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사찰의 재정사고가 이러한 계율을 무색케 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발생한 범어사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교계의 참회와 자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스님)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에서 공금횡령과 문화재 밀거래 등 반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등이 솔선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종무행정 전반의 현실을 검토해 대중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종무행정 쇄신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범어사내 청년승가모임도 15일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범어사 자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범어사 집행부의 일괄 사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산문총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가단체들의 실망과 충격은 더욱 크다. 50여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7일 "이번 사건은 일선 사찰에서부터 종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등 문화재 국고보조와 교부를 둘러싼 모든 주체의 그릇된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가연대는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종교단체의 기부금, 정부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대한 재정 공개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5년간 불교계에서 일어난 재정사고는 굵직한 것만 해도 10여건. 그동안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재정 사고 처리에 대한 불자들의 여론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이며, 재가단체들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종단의 종합적인 종무행정 투명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군죽비

◇조계종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방지 종합대책' 마련. 문화재 지키는 일을 넘어 성스러움을 고양시키는 일로 승화되기를. (3면)

◇대불련 출신 의료계 종사자 모임 '선재마을 의료회' 서울역 노숙자 무료 진료. 고통 나누기로 보살행 체현. (6면)

◇한국禪의 뿌리는 신라禪. 주체적 선사상 풍토 위에 중국 선종 수용. 신문선 형태로 독자적 발흥. (16면)

◇강진 백련사 '재가자 무문관' 수행.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으로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다. (23면)

"문화재 예산 先배정"
"성보도난 주지 징계"

조계종 불교문화재 보존 종합대책 발표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내 문화재교육 강화, 문화재사범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담은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무원 부·실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들어 불교문화재의 절도와 훼손, 해외 유출과 밀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 되었으나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5% 미만"이라고 지적, 6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의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종합 대책'을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보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가지 대책은 △종단 내 문화재 관련 교육 강화와 예산 우선 배정 △종단과 정부당국이 사찰 소장 문화재 실태 공동 조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문화재청 단속반의 강화와 검·경의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정대스님은 특히 "종단 내 각종 교육과정에 반드시 문화재 관련 과목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예산 지침과 승인 과정에서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증액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또 "성보를 잃어버린 사찰의 주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며 청원경찰 등 문화재 보존 전담 인력도 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당국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잇따라 성보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망 미비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84-99년 사이 316건(년 평균 20건)의 성보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pia.com

구인사 모내기 지난 16일 단양 구인사의 30여 스님들이 모내기를 하는 모습은 수행과 일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서는 논, 밭, 과수원 등 7만여 평의 농장을 스님들이 손수 가꾸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승가의 청규를 실천하고 있다.

단양 구인사=고영배 기자

원각사지 10층석탑 특별안전진단 실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탑골공원(제 354호) 성역화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붕괴 우려가 제기돼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원각사탑은 현재 탑신부 6층 소재 회상과 7층 원통회상 사이에 있는 2중 옥개석의 상대부가 탑신부에서 상당히 이탈되어 있고 동남향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다. 또 탑의 하중을 떠받치는 4개의 지대석 가운데 하나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다.

서울시는 15일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붕괴위험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시립박물관 발굴팀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키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반을 구성,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각사지 10층석탑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는 92년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만간 서울시청을 방문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앞서 원각사에 대한 역사적 규명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日 역사교과서 시정 공동노력"

한·일 불교대회 '선언문'

2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한 한·일 두 나라 불교대표들은 15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법요식과 '불교의 효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나라 불교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처해진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양국 불교도는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 불교도는 또 공동선언문에서 △가족윤리를 확립하여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고 부모는 자식을 불자로 키워 나가며, 가족의 화합을 사회로 넓혀나가 서로 믿고 협조하는 불국토 실현에 기여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노력한다 △석존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국가나 정치를 초월한 보편의 가르침이며,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두 나라 대표 50명은 16일 김대중 대통령 초청 간담회 참석, 보문사 참배, 진각종 현태종 초청 조찬 만찬 등의 일정을 보냈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일 두 나라의 불교지도자들이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전자불전 학술대회 25·26일 동국대서

세계전자불전학회(약칭 EBTI)의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5~26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동국대 개교 95주년 기념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불전 전산화에서의 국제협력'이란 주제 아래 6개국 17명의 학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대장경 전산화 작업에서의 경험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글대장경 318권 가운데 1차로 30권을 연말까지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녹차향 그윽 윤사월 3寺순례

5월: 쌍계사 · 칠불사 · 국사암

윤사월을 맞아 자신의 업장을 씻고 공덕 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순례와 차문화 축제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나라 차 시배지인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자방(亞字房)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칠불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38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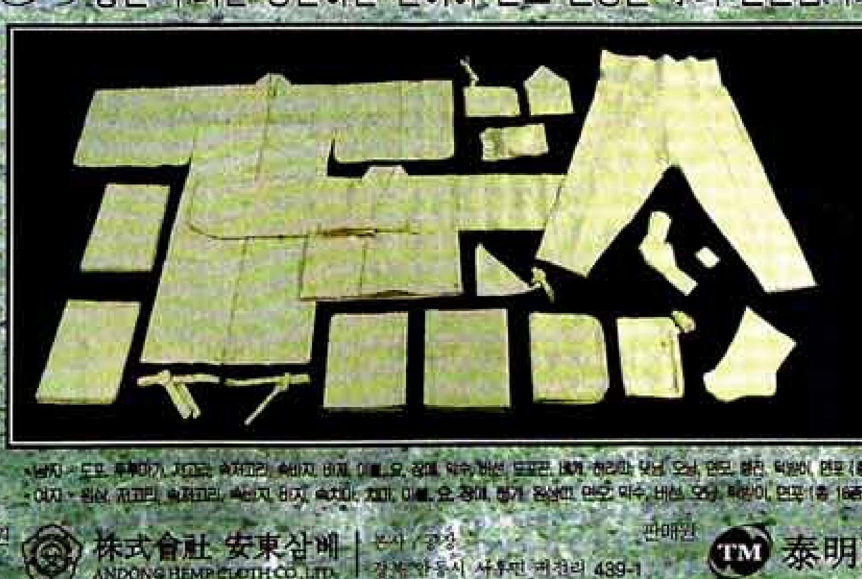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3사순례의 선업쌓기와 더불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5월 26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孝의 실천입니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망중수의와 삼베 이불 증정하여 드립니다. (안동삼베 特品이상)

품명	구성	재질	가격	백화점가격
삼베 二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550,000원	600,000원
삼베 一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이상 제거한 후 정성들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798,000원	900,000원
삼베 特品	남 20종, 여18종	재마 100% 천사수직로 안동포 7새를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150,000원	1,320,000원
수직 特品	남 20종, 여18종	재마 100% 천사를 베틀로 제작한 고급 수직 제품	1,450,000원	1,187,000원
안동포 七세	남 20종, 여18종	순수삼베 자연사 100%(국산)를 재래식으로 제조 자연 염료인 치자염색으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3,950,000원	4,200,000원

윤달(윤사월 5.23 ~ 6.20)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불자님 특별할인가격] [L백화점 판매가격]

※ 카드 6개월 무이자, 택배 가능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모관, 대, 현, 의, 오낭, 오낭, 면모, 볕건, 턱받이, 면포 (총 20종)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명개, 원삼끈,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제조원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판매원 TM 泰明商社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70-8호 해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